

# 멀리 안가도 좋아... 도심 속 가족여행 GO

2017년 05월 02일 (화)

전국 12B면

## 경기 지자체 다채로운 어린이날 행사 마련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이달 초 이른바 황금연휴기간 일이 바쁘거나 업무가 나지 않아 여행을 떠나지 못한 부모들이 아이들과 하루 정도 지낼 만한 곳은 없을까.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부모를 위해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도심에서 비용격정 없이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수원시는 5일 어린이날 수원박물관과 수원화성박물관, 수원청소년문화

센터, 만석공원 등 수원지역 곳곳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수원박물관은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며 관람하는 '박물관 구석구석'과 함께 어린이 국궁, 스티커 문신, 전통놀이 등 무료체험을 운영한다.

수원화성박물관은 정조대왕의 지극한 효심을 되새겨볼 수 있는 만들기 체험 행사를 연다. 수원청소년문화센터와 만석공원 등 8곳에서는 과학놀이 한마당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가족 단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수원 여러 박물관 돌며 역사탐방 용인·성남, 시청광장 열고 대축제 과천·군포·화성도 문화 체험준비

용인시는 시청 광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어린이날 대축제'를 연다.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뮤지컬·북화술인형극 등 6개의 공연과 드론·문패·바람개비 만들기 등 23개의 체험부스, 플리마켓, 3D입체영화관 등을 운영한다. 가족단위로는 댄스대회와 미니게임, 얼음참기, 격파왕 등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무대가 마련되고, 가족사진을 찍

어 캐릭터 스티커 사진으로 출력해주는 가족사진관도 마련했다.

성남시는 시청 광장을 놀이터로 개방해 '노는게 제일 좋아~'를 주제로 한 어린이날 큰잔치를 펼친다. 어린이날 기념 퍼포먼스와 별문&매직쇼, 팝카펠라 공연, 특공 무술, 카밀라 청소년벨리·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코리아 주니어밴드 공연 등이 오후 4시까지 펼쳐진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34개 놀이 체험 부스가 차려지고 사물놀이, 흙놀이, 짚신 자동차 타기 등의 전통놀이와 창의블록 만들기, 물감색칠놀이, 가방 꾸미기, 드론체험 등의 미술과학놀이,



경기 용인시가 지난해 시청앞 광장에 마련한 어린이날 행사장면.

용인시제공

꽃팔찌 만들기, 버릇 격파하기, 사랑의 카네이션 만들기 등의 공감놀이도 준비된다. 수정구 수잔공원(별터산)에서 '놀이가 밥이다'를 주제로 바람개비·풍선가면·색종이 팽이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 체험 행사가 이어진다.

과천시 is 중앙공원 분수대 일원에서 비상과 희망의 상징인 '용'을 소재로 아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군포시는 해외 문화를 체험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군포시민체육관에서 진행한다. 화성시는 전곡항에서 카약체험 행사 진행과 함께 바닷가 섬에서 고즈넉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다.